

다산포럼



조영철 고려대 경제학과 초빙교수

2017년 한 해가 저물고 있다. 탄핵 정국 때만 해도 정치 사회 혼란으로 인해 한국 경제가 전반적으로 좋지 않았고 경제성장률도 2% 후반대에 머물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 집권 이후 반도체 특수 수출 호조로 2017년 경제성장률이 3%를 넘는다고 한다. 그러나 경제성장률에 비해 고용 상황은 크게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 수출의 고용 창출 효과가 예전보다 현저히 떨어졌기 때문이다. 고용 상황이 개선된다면 소비 내수가 활성화해야 한다.

그런데 지난 20년 동안 기업소득 증가에 비해 GDP 대비 가계소득 비중은 감소했고 노후 불안으로 소비 성향마저도 하락해 GDP 대비 소비 비율은 외환 위기 때보다도 낮은 수준이다. 추경 예산과 소득 주도 성장 정책으로 최근 소비가 늘었지만 아직 견고한 소비 증가세라고 보기는 어렵다.

국민연금이 용돈 연금에 불과하고 그마저도 못받는 노인들이 많다. 한국의 자살률이 OECD에서 가장 높은 것도 노인

미래 위한 '사회 투자' 확대해야

자살률 때문이다. 사회복지가 부족한 상태에서 기대수명 연장은 중장년 이상 세대에 노후 불안이란 공포로 다가온다. 중장년 이상 고령층은 기대수명 연장만큼 노후 대비 저축을 늘려야 하고 그만큼 소비를 줄일 수밖에 없다.

고령층 부동산 투자의 부작용

박근혜 정부의 '빚저서 집 사라'는 정책 부추김도 있었지만, 중장년층 이상이 부동산 투자에 집착하는 근저에는 노후 불안이 도사리고 있다. 2032년부터 인구 감소로 부동산 전망이 불투명해에도 불구하고, 조세 구조가 부동산 투자에 절대적으로 유리하게 짜여 있기에 부동산 투자와 가격 상승은 지속되고 있다.

노후 대비 부동산 투자가 개인 입장에서는 합리적 선택이지만, 사회적으로는 오히려 경제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이다. 중장년 고령층이 저축자산을 부동산에 집중 투자하면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자, 청년 계층은 집 사기 위한 목표 저축액을 올리고 전·월세 소득이 다주택 소유자로 이전하면서 소비를 위축시킨다.

저출산·고령화로 15~64세 생산 가능 인구는 올해부터 이미 감소하기 시작한 반면,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계속 증가해 생산 가능 인구 1백 명당 부양할 인구는 2065년 108.7명에 달할 전망이다. 사회가 유지된다면 미래 세대가 이런 높은 노인

부양비를 감당할 수 있도록 현재 저축자산은 미래 세대의 생산력을 높이는 데 집중 투자돼야 한다. 그런데 현재 중장년 고령층의 저축자산이 부동산 투자에 집중됨으로써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는 청년 세대의 주거 부담을 오히려 가중시키고 있다.

저출산·고령화로 잠재성장률 하락이 예상되면 그렇게 되지 않도록 투자를 해야 한다. 즉 청년에게 공공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경력 단절로 출산을 기피하는 여성에게 일·가정 양립 정책 지원을 통해 여성 경제 활동 참가율을 올리고,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교육 투자로 한 명의 인재라도 시장되지 않게 과감하게 사회 투자를 해야 한다.

사회복지 확충으로 고용 유발

그런데 한국의 재정 보수주의자들은 저출산·고령화에 대비해 지금부터 재정 건전성을 중시해야 한다면서 미래 세대를 위한 사회 투자 증대에 반대한다. 저출산·고령화로 미래 재정이 악화될 것이므로 지금부터 재정 지출을 아끼고 국민연금 적립금도 더 쌓아 두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재정 보수주의자들이 사회 투자에 반대하고 재정 건전성만을 강조하는 이유는 한국의 저출산·고령화 문제가 해결될 수 없고 결국 잠재성장률 하락은 불가피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은 '헬조선'이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게 만들고 잠재성장률을 떨어뜨리는 근본 원인인데도, 원인은 놔두고 돈만 쌓자는 것이다.

청춘 특·특



전경현 광주대 신문방송학과 3년

"난 안돼 못할 거야." 광복 70주년을 맞아 광주·전남 최초로 광주시청 잔디숲에 세워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를 기리는 '평화의 소녀상' 건립 추진 당시 하루에도 몇 번 씩 기성체 대들에게 들던 말이다. 당시만 하더라도 호남권에는 '평화의 소녀상'이 설치된 곳이 한군데도 없었다. 어느 누구도 나서지 않았을 때, 학생회도 아닌 평범한 대학생이 소녀상을 세우겠다고 시청에 제안하자 공무원을 비롯한 지역사회에서는 실현 불가능한 대학생의 패기roman 생각했다.

청년들에게도 정치 참여 '기회'를 주세요

스(SNS)를 통해 청년들이 소녀상을 건립할 수 있도록 재능 기부와 모금 운동을 해준 덕분에 한 달 남짓한 기간 만에 1300여 명의 도움으로 무사히 건립할 수 있었다. 이는 급진적으로든, 다른 정치적인 이유에서든 힘을 거라는 기성 세대의 판단이 틀렸던 것이다. 우리 청년들이 그렇다. 역사상 유례없는 최악의 실업난으로 무엇을 하기에든 힘든 시대에 살고 있지만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는 '기회'만 있다면 불구덩이에도 뛰어 들 수 있는 게 현재의 청년들이다. 올해만 대한민국으로 자리매김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크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가 청년들의 힘으로 세워진 소녀상 이외에도 알 수 있는 것이 최소실 국정농단 사건으로 벌어진 박근혜 퇴진 운동이었다. 청년들은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모두가 분노하여 광화문 광장, 금남로 등 자신의 지역 촛불 집회 장소에 모여 힘을 합친 덕분에 지난 5월 치러진 대통령 선거에 정권 교체를 할 수 있었다. 촛불 혁명으로 새로운 정권이 열린 만큼 지역에서도 새로운 정치를 위해서는 세대교체가 필요한 시점이다. 프랑스 대통령 에마누엘 마크롱과 캐

나다 총리 저스틴 트뤼도에 전 세계가 열광하는 것도 상대적으로 젊은 연령의 리더가 정치를 하면 기존의 세대와 다른 신선한 새 정치를 할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이 아닐까 한다. 그러한 바람이 우리 지역 사회에도 불어 내면 지방선거에 세대교체를 원하는 움직임이 활발하다. 여러 가지 이유 중 하나는 현재 광주시 제 7대의 회의는 시의회를 비롯한 5개 자치구 의회에 20~30대 광역의원, 기초의원이 단 한 명도 없다는 것이다. 1대 기초의회에서 20~30대 의원이 30명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호남 정치 1번지'라는 이름에 걸맞지 않게 젊은 정치인 육성의 힘으로 세워진 소녀상 이외에도 알 수 있는 것이 최소실 국정농단 사건으로 벌어진 박근혜 퇴진 운동이었다. 청년들은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모두가 분노하여 광화문 광장, 금남로 등 자신의 지역 촛불 집회 장소에 모여 힘을 합친 덕분에 지난 5월 치러진 대통령 선거에 정권 교체를 할 수 있었다. 촛불 혁명으로 새로운 정권이 열린 만큼 지역에서도 새로운 정치를 위해서는 세대교체가 필요한 시점이다. 프랑스 대통령 에마누엘 마크롱과 캐

어뜨리는 근본 원인인데도, 원인은 놔두고 돈만 쌓자는 것이다.

아담 스미스는 국부의 원천은 쌓아 놓은 금이 아니라 부가가치 창출 능력이라고 중상주의를 비판했다. 우리는 저출산·고령화에 대비해 돈을 쌓아 두자는 한국판 신중상주의가 아니라 지금부터 미래 세대의 수와 생산 능력을 높이는 데 과감하게 사회 투자를 해야 한다. 노후 불안으로 부동산 투자에 집착하는 개개인의 입장은 이해하지만 '헬조선'을 악화시킬 뿐이다. 청년 세대의 부담을 증가시키는 부동산 시대 추구 자녀에 대한 교육 투자로 한 명의 인재라도 시장되지 않게 과감하게 사회 투자를 해야 한다.

사회복지는 기초연금 같은 소비성 지출만 있는 게 아니다. 사회복지 서비스도 국민이 꼭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생산하고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이다. 고용 유발 효과는 사회복지가 최고다. 한국 국민이 절실히 필요로 하는 사회복지를 정부가 충분히 공급하지 못한 채 시장에 맡기고 있기 때문에 전문성이 부족한 간병인을 개인 돈으로 고용해야 하고, 아이를 국공립 어린이집보다 더 비싼 민간 어린이집의 비정규직 보육 교사에게 맡겨야 하는 등 비효율이 만연해 있다. 저출산 대책으로 미래 세대 부담을 줄이려면 적극적 재정 정책으로 사회 투자를 과감하게 확대해 복지 부족이 야기하는 사회 비효율부터 먼저 줄여 나가야 할 것이다.

社說

비상구는 없고 막히고 소방 법안은 잠자고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를 계기로 광주 지역 목욕탕 등 다중 이용 시설을 광주일보 취재진이 둘러봤다. 안전불감증은 여전했다. 동구의 5층 건물에 자리한 한 사우나는 비상구 접근은 쉬웠으나 정작 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 비상구 계단 곳곳에 청소 도구나 건축 기자재, 직원들의 짐이 쌓여 있었다. 복구의 한 목욕탕은 비상구 없이 출입구가 한 곳뿐이었는데 계단에 화분이 빼곡히 놓여 있었다.

또한 제천의 화재 피해를 키운 주범으로 지목되는 필로티 구조(기둥으로 건물 1층을 지표면에서 떠온 구조)와 '드라이비트'(스티로폼에 석고나 페인트를 덧바른 마감재) 건축의장재를 쓴 건물이 광주·전남 지역에도 널리 있다. 소방 당국의 철저한 단속과 점검이 요구된다.

그러나 정작 또 다른 문제는 제천 화재 당시 불법 주차 차량 때문에 인명 구조가 지연된 것과 관련 이 같은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서 수개월째 낯잠을 자고 있다는 점이다. 더블

어민주당 김영춘 의원은 지난 3월 소방차 등 긴급자동차의 통행을 방해해 대형 참사를 초래할 수 있는 곳을 주정차 특별금지구역으로 지정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아직까지 소관 상임위의 심사조차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이와 관련 최근 청와대 계서판에는 불법 주차로 소방차 출동 지연 시 주차차량 강제 이동 및 파손 시 소상서 책임을 면제해 주는 청원이 높은 효용을 얻고 있다. 민주당 소방청 의원도 최근 소방 공무원이 소방 활동 등을 하다가 타인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피고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만 한정하고 해당 소방관은 제외하는 내용의 소방기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우리는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은 국가와 사회가 책임지는 것이 마땅하다고 본다. 아울러 국회는 앞으로 대형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이 같은 소방 관련 법안을 서둘러 통과시켜야 할 것이다.

버스도 오지 않는 농어촌 마을 그리 많더니

전남 지역에는 버스나 철도 등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없는 마을이 620곳이나 된다고 한다.

버스가 다녀도 배차 시간이 워낙 뜸해 읍내를 오가는 데만 한나절이 걸리는 마을도 844개나 된다. 마치 1970~1980년대 얘기 같지만 틀림없는 전남 오지 마을의 현실이다.

광주전남연구원의 '광정리더스 Info(인포) 제79호'에 실린 '전남 대중교통 취약 지역에 대한 최소한의 교통서비스 제공 필요'라는 제목의 논문에 따르면 대중교통이 전무한 마을 158개, 노선버스가 운행되지 않는 마을은 462개에 달해 전남 지역 10% 정도의 마을이 대중교통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 또 노선버스는 있지만 운행 횟수가 하루 1~3회인 마을은 844개, 4~6회인 곳은 2082개로 드러났다.

이는 오지 마을의 경우 운행 거리가 길어 운영비는 많이 들어가는 반면 승

객 수는 오히려 적어 적자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오지 마을 주민들은 의료 및 문화 혜택에서도 소외되고 있다.

따라서 이제는 일부 지자체가 오지 마을 주민의 이동권 확대를 위해 도입한 제도를 면밀히 검토해 확대·시행하는 등 열악한 교통복지 극복 방안을 찾아야 할 때다. 특히 노선버스가 없는 마을의 주민들이 100원만 내면 택시를 타고 읍내 생활권을 오갈 수 있는 곡성 '100원 택시'는 성공 모델로서 본받을 만하다.

여기에 마을에서 승강장까지 거리가 800m 이상 또는 배차 간격이 세 시간 이상인 마을을 대상으로 전주시가 운영하는 인기를 끈 '모심택시'(4인 이용 시 500원)도 검토할 가치가 있다. 더불어 오지 마을 서너 곳을 한 권역으로 묶어, 특정 시간에 승합차·택시를 운행하는 맞춤형 서비스도 고려할 만하다.

無等鼓

지난 22일은 '동지(冬至)였다. 동지는 24절기 중에서 대설(大雪)과 소한(小寒) 사이에 있는 22번째 절기다. 이때 태양은 가장 남쪽에 위치하는데, 우리나라와 중국 같은 북반구에서는 낮의 길이가 가장 짧고 밤이 가장 길며, 남반구에서는 낮의 길이가 가장 길고 밤이 가장 짧다.

양력으로는 12월21일 또는 22일이며, 음력 날짜는 11월로 유동적이다. 그런데 음력으로 동지가 11월 초순(1~10일)에 들면 '애동지'(兒冬至), 중순(11~20일)에 들면 '중동지'(中冬至), 하순(21~30일)에 들면 '노동지'(老冬至)라고 한다. 이번 동지는 음력으로 11월5일이었으니 애동지였다. 애동지는 경북과 강원에서는 '애기동지' '아동지'라고 하며, 전남에서는 '아그동지'로, 강원과 전남에서는 '소동지'로도 불린다.

본래 동지에는 자기 나이만큼 새알심을 넣은 팔죽을 먹는 풍습이 있다. 붉은빛의 팔이 잡귀와 액운을 물리친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동지 팔죽의 유래는 중국의 '형초세기기'(荊楚歲時記)라는 책에 나와 있다. 옛날 공공씨(共

工氏)라는 사람이 망나니 같은 아들을 하나 두었는데 그 아들이 동짓날 숨겨 역병을 퍼뜨리는 역귀가 됐다. 공공씨는 아들이 생전에 팔을 실어했기 때문에 동짓날 팔죽을 쑤어 집안 곳곳에 뿌려 역귀를 물리쳤다고 한다.

하지만 동지가 해도 애동지에는 팔죽을 쑤 먹지 않았다. 노동지에는 늙은이가, 중동지에는 중늙은이가, 애동지에는 아이가 많이 죽는다는 속설이 있기 때문이다. 아이가 죽어서는 안 된다

애동지

고 여겨 애동지에는 팔죽을 쑤지 않고 대신 쌀 시루떡을 찌서 먹었다고 한다. 동지는 오랜 역사를 가진 우리 세시 풍속이지만, 전통적인 가족 문화가 변하고 생활이 바빠지면서 잊혀 가는 추세다. 다만, 동지 팔죽으로 겨우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또 이날은 사회 곳곳에서 어려운 이웃과 팔죽을 나눠 먹으며 새해 달력을 나누는 행사로 자리 잡아 가고 있다. 앞으로 후손들은 동지가 어떤 날인지도 모르고 살아갈지도 모른다. 그럼에도, 동지가 '나눔의 날'이 돼 가는 오늘날의 풍속은 계속 이어졌으면 한다.

/백지경 서울취재본부 부장jkpark@

기 고



노영기 조선대 기초교육대학 교수

아득히 먼 옛날부터 사람들은 길을 만들었다. 그러나 처음부터 길이 나지는 않았다. 평평한 곳은 자주 다니고 좁고 불편한 곳은 넓히고 편하게 만들어갔다. 사람들은 길을 다니는 것에 머물지 않았다. 새로운 인연을 맺고 문화를 만들며 지역을 가르는 경계를 무너뜨렸다. 길을 다니며 새 소식과 사상을 전하고 새로운 세상을 꿈꾸었다. 사람들이 길을 떠나며, 그렇게 역사는 쌓여갔다. 산과 언덕에 가로막히면 뉘나들며 고갯길을 만들었다. 그런 고갯길 가운데 하나가 광주와 화순을 잇는 너릿재(板峙)이다. 고갯길에는 저마다의 사연들이 많고 너릿재도 미처 이루지 못한 꿈들을 품고 있다.

너릿재의 슬픈 노래

운 세상을 꿈꾸며 낮과 죽창을 들었다. 동학 농민들은 꿈을 이루는 듯 했으나 일본과 부패한 정부의 탄압으로 그 뜻은 꺾어졌다. 집강소(執綱所)를 만들어 농민들이 바라던 세상을 잠깐 맛보았으나 말로만 꿈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다. 그 뒤 처형된 동학 농민군들의 시신들을 넣은 '널(板)'을 날랐던 것으로부터 너릿재(板峙)의 이름이 생겼다는 슬픈 이야기가 있다. 이름의 유래부터 남달랐듯이 너릿재는 민중들의 이루지 못한 꿈과 슬픈 역사를 품고 있다.

1907년 외적으로부터 나라를 구하고자 화순에서 행사(畵史) 양희일(梁希一)이 의롭게 일어났다. 그는 주변과 연락해 쌍산의소(雙山義所)를 만들고 의병들과 함께 농주와 화순 등지의 광곡서 및 일본인 상가 등을 공격했다. 광주로 진격할 것을 계획했으나 날이 저물어 끝내 너릿재를 넘지 못하고 모후산으로 길을 돌렸

다. 미군의 통치는 광복의 기쁨을 안아갔다. 미군정은 친일파를 다시 뽑고 일제의 식민통치를 이어갔다. 해방된 조국에서 화순탄광의 노동자들도 새로운 세상을 꿈꾸었으나 그리 쉽게 이룰 수 없었다. 미군정은 나라의 기간 산업인 탄광을 접수하고 노동자들은 다시 전과 감옥에 갇혔다. 광복이 됐으나 자주독립은 멀리 있고, 분단의 생애기는 깊어지며 노동자들은 먹을 쌀조차 없었다. 1946년 8월 15일 화순탄광의 노동자들은 너릿재를 넘어 광주에서 열린 해방 1주년 기념식에 참석했다. 이날 노동자들은 쌀과 완전한 독립을 달라고 시위했다. 미군정은 경찰과 미군, 비행기와 탱크를 앞세워 노동자들을 광주에서 너릿재까지 몰아간 뒤 칼로 찌르고 총질했다. 그 뒤 미군정은 노동자들을 억누르며 일시 광산의 문을 닫았다. 그로 인해 노동자들은 총칼에 맞아 죽거나 다치고, 새 세상을 바라던 노동자들의 꿈은 그렇게 무너져갔다. 수십 년 뒤 한 시인은 이들의 슬픔을 노래한 죄로 감옥에 갇혀야 했다. 그렇게 너릿재의 아픔은 또 다시 역사의 한 조각으로 쌓여갔다.

1980년 5월 광주는 삶과 죽음이 엇갈린 곳이었다. 군인들은 국민들을 짐승처럼 대하고 시민들을 향해 총을 쏘았다. 시민들은 살고자 총을 찾아 너릿재 터널을 뚫아냈다. 5월 22일부터 광주를 빠져나가는 모든 길목을 군인들이 막아서고 시민들은 광주 순탄광의 노동자들도 새로운 세상을 꿈꾸었으나 그리 쉽게 이룰 수 없었다. 미군정은 나라의 기간 산업인 탄광을 접수하고 노동자들은 다시 전과 감옥에 갇혔다. 광복이 됐으나 자주독립은 멀리 있고, 분단의 생애기는 깊어지며 노동자들은 먹을 쌀조차 없었다. 1946년 8월 15일 화순탄광의 노동자들은 너릿재를 넘어 광주에서 열린 해방 1주년 기념식에 참석했다. 이날 노동자들은 쌀과 완전한 독립을 달라고 시위했다. 미군정은 경찰과 미군, 비행기와 탱크를 앞세워 노동자들을 광주에서 너릿재까지 몰아간 뒤 칼로 찌르고 총질했다. 그 뒤 미군정은 노동자들을 억누르며 일시 광산의 문을 닫았다. 그로 인해 노동자들은 총칼에 맞아 죽거나 다치고, 새 세상을 바라던 노동자들의 꿈은 그렇게 무너져갔다. 수십 년 뒤 한 시인은 이들의 슬픔을 노래한 죄로 감옥에 갇혀야 했다. 그렇게 너릿재의 아픔은 또 다시 역사의 한 조각으로 쌓여갔다.

살고자 총을 찾아 너릿재 터널을 뚫아냈다. 5월 22일부터 광주를 빠져나가는 모든 길목을 군인들이 막아서고 시민들은 광주 순탄광의 노동자들도 새로운 세상을 꿈꾸었으나 그리 쉽게 이룰 수 없었다. 미군정은 나라의 기간 산업인 탄광을 접수하고 노동자들은 다시 전과 감옥에 갇혔다. 광복이 됐으나 자주독립은 멀리 있고, 분단의 생애기는 깊어지며 노동자들은 먹을 쌀조차 없었다. 1946년 8월 15일 화순탄광의 노동자들은 너릿재를 넘어 광주에서 열린 해방 1주년 기념식에 참석했다. 이날 노동자들은 쌀과 완전한 독립을 달라고 시위했다. 미군정은 경찰과 미군, 비행기와 탱크를 앞세워 노동자들을 광주에서 너릿재까지 몰아간 뒤 칼로 찌르고 총질했다. 그 뒤 미군정은 노동자들을 억누르며 일시 광산의 문을 닫았다. 그로 인해 노동자들은 총칼에 맞아 죽거나 다치고, 새 세상을 바라던 노동자들의 꿈은 그렇게 무너져갔다. 수십 년 뒤 한 시인은 이들의 슬픔을 노래한 죄로 감옥에 갇혀야 했다. 그렇게 너릿재의 아픔은 또 다시 역사의 한 조각으로 쌓여갔다.

1980년 5월 광주는 삶과 죽음이 엇갈린 곳이었다. 군인들은 국민들을 짐승처럼 대하고 시민들을 향해 총을 쏘았다. 시민들은 살고자 총을 찾아 너릿재 터널을 뚫아냈다. 5월 22일부터 광주를 빠져나가는 모든 길목을 군인들이 막아서고 시민들은 광주 순탄광의 노동자들도 새로운 세상을 꿈꾸었으나 그리 쉽게 이룰 수 없었다. 미군정은 나라의 기간 산업인 탄광을 접수하고 노동자들은 다시 전과 감옥에 갇혔다. 광복이 됐으나 자주독립은 멀리 있고, 분단의 생애기는 깊어지며 노동자들은 먹을 쌀조차 없었다. 1946년 8월 15일 화순탄광의 노동자들은 너릿재를 넘어 광주에서 열린 해방 1주년 기념식에 참석했다. 이날 노동자들은 쌀과 완전한 독립을 달라고 시위했다. 미군정은 경찰과 미군, 비행기와 탱크를 앞세워 노동자들을 광주에서 너릿재까지 몰아간 뒤 칼로 찌르고 총질했다. 그 뒤 미군정은 노동자들을 억누르며 일시 광산의 문을 닫았다. 그로 인해 노동자들은 총칼에 맞아 죽거나 다치고, 새 세상을 바라던 노동자들의 꿈은 그렇게 무너져갔다. 수십 년 뒤 한 시인은 이들의 슬픔을 노래한 죄로 감옥에 갇혀야 했다. 그렇게 너릿재의 아픔은 또 다시 역사의 한 조각으로 쌓여갔다.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김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金日煥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11(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경제부 220-0663 (대표 FAX 222-4918) (FAX 222-4938)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FAX 222-8005) (FAX 222-0195)
기획관리국 227-9600 업무국 220-0551 (FAX 227-9500) (FAX 222-0195)
정치부 220-0632 문화미디어부 220-0664 (FAX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FAX 02-773-9335)
사회부 220-0642 체육부 220-0697 사 회 부 220-0652 사 진 부 220-0693
\*우편물 발송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